

코로나19 확진자 사전 2일차 선거일 오후 6시부터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이하 확진자 등)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투표관리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보장 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전투표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토)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우선 본인이 확진자 증상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투표관리 특별대책 발표 방역당국 통지 문자·SNS 등 제시해야

임시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한다. 한편,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생활치료센터 10곳에는 사전투표 2일차에 한해 별도 시간을 정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반 유권자와 확진자 격리자의 동선을 철저히 구분·운영하고, 예상투표인원,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해 임시기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확진자 등은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하고,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선거와 달리 확진자 등의 투표참여 사전 신청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확진자 등의 외출 허용 시각 및 투표안내 문자·SNS 내용 선거일에 투표할 확진자 등의 명단 제공 여부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난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철저한 관리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역구 가리지 않고 지지 호소에 총력

민주 안호영 의원, 정세균 전 총리와 전북 집중유세 일정 동행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미래경제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역을 가리지 않는 대선 선거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 의원은 전북 각 시·군을 순회하며, 유세에 나선 정세균 상임고문 일정에 동행했다. 정 고문과 안 의원은 지난 24일 임실과 전주를 찾은 데 이어 25일에는 완주, 익산, 군산을 잇달아 찾아 도민들에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정세균 고문은 지난 25일 완주 봉동 농협 앞 유세 현장에서 연단에 올라 "집권당이 바뀌면 전북은 찬밥신세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전북의 민주당 지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전북도민들께서 저를 키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24~25일 전북 각 시·군을 순회하며, 유세에 나선 정세균 상임고문 일정에 동행했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북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사람을 키워야 전북이 크다. 안호영 의원의 여러분께서 키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덧붙여 완주군민의 호응을 얻었다. 안호영 의원 역시 "2대 대선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서 기회라 는 길로 나아가길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민주당 재창출과 전북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세균 전 총리님께 감사드리다"며 화답했다. /유호상 기자

'위기의 택시노동자 권리 보장 책임자'

정읍 택시 종사자 300여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정읍 지역 택시업체 대표 10명과 개인택시 종사자 300여 명이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윤준병 의원과 김정길 정읍 법원법시연회의 회장 그리고 문석준 정읍 개인택시조합장 등 택시운수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지방도시에서 택시운수에 종사하는 우리는 인구감소 등으로 폐업위기에 몰려있다"며 "택시 준 대중교통 인정, 공공 택시 호출앱 구축 등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위기의 택시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진정한 서민의 후보는 이재명 후보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정읍 지역 택시업체 대표 10명과 개인택시 종사자 300여 명이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해준 택시운수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재명 후보는 약자의 이름, 서민의 고통을 그 누

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유일한 대선후보"임을 역설했다. /유호상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지난 25일 김제 농업인 단체(사진 왼쪽)와 김제여성포럼(가운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앞서 24일 김제시 장애인단체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김제농업의 미래 이재명과 함께합니다!



김제시 장애인 205명 이재명후보 지지선언

김제지역 각계각층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잇따라

김제 한농연·한여농
여성포럼·장애인단체 등

지난 25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김제 한농연, 대표 최현규)와 '한국여성농업인 김제시연합회'(김제 한여농, 대표 김병선)

회원 3천여 명은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또한, 같은날 김제여성포럼(대표 김지선) 회원 311명은 더불어민주당 김제시 선거연락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시각·농아인·신장·정신장애인 205명이 더불어민주당 김제시 선거연락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선관위, 대선 투표참여 촉진 교통편의 제공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및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운행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통 불편 지역은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수단의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지역 노약자 다수 거주 지역 등을 말하는 것으로 3월 9일에 도내 370개 노선에서 849회 운행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해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차량 등 69대의 차량과 82명의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사전투표일(3월 4일, 5일)과 선거일(3월 9일) 이들의 투표소 이동에 도움을 주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전주발전 위해 이재명에 힘 보태달라'

조지훈 전 경진원장
원도심 상인들 만나
이 후보 지지 호소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진흥원장이 전주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해법 모색과 함께 소상공인의 삶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지난 24일 전주 원도심 상인연합회(회장 박영근) 사무실에서 걸고싶은거리·청소년의거리·영화의거리·문화의거리·객리단길·차이나거리·충경로·전라김영길 상인회장 등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승리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전주 누비기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간담회에서 원도심 상인연합회는 우선 원도심에 프랜차이즈가 못 들어오는 곳은 전주뿐이라고 지적한 뒤 프랜차이즈 입점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프랜차이즈 입점 규제에 대해 대학가와 전주신시가지로 프랜차이즈가 몰리면서 오히려 원도심에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도심 상인연합회는 원도심 고도제한 역시 소상공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화박물관 신축사업이 예산문제에 의해 지하 1층으로만 주차장이 계획됐다면 지하 2층으로 추가 증축해 주차면수를 확대하고 건축평수 역시 확장에 행사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원도심 내 프랜차이즈 입점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극 검토하고 전주 토종 프랜차이즈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도 고민해 보겠다"며 "특히 영화박물관은 앞으로 40~50년은 사용할 건물인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00대 이상 확보, 국제 영화제 진행이 가능한 만한 규모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이번 선거는 전주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 중요 하지만 전주 발전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온종일 돌봄에 10억 이상 확대 지원'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사람유치원연합회
정책간담회 참석

이재명 후보 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지난 25일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이 교육부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온종일 돌봄(유치원 종일돌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10억원 이상 시 재정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의 보육환경 속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와 박희자 도의원도 참석해 온종일 돌봄 활성화 방안 등 효율적인 민간보육행정을 펼칠 수 있는 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 전 부지사는 "뭇별이 부부가 늘면서 영유아의 가정 내 육아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보육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특히,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온종일 돌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10억 원 이상의 추가재정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안 출신인 우 전 부지사는 전주 해성고등학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경제기획원, 통계청 기획조정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과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 공동선대위장 및 전북총괄본부장, ▲국민참여플랫폼 국민특보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김윤상 기자

이학수 전 도의원
출판발표회 등 개인 홍보 취소

정읍시장에 출마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전 도의원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정읍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개인의 욕심을 잠시 접어두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년간 정읍시민들에게 자신의 선거공약집을 통해 출마의 입장과 정읍발전 공약을 밝히려 고 준비해 왔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정국과 맞물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 소속 지방선거 입지자들에게 '개인의 지방선거 운동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선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전 의원은 준비해 온 선거공약집 출판발표회를 부득이 하게 포기하고, 오투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학수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미래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같은 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본인의 선거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다"면서 "대선에서 승리한 후 나의 선거운동을 해도 충분하며 이런 저의 생각을 정읍시민들께서 인정해 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3선 도전' 양영환 전주시의원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마쳐

전주시의회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 1·2 등) 의원이 지난 25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양 의원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시 한 번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섰다"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양 의원은 전주시의회 소속 34명 중 유일한 민선당 의원으로 이번이 3선 도전이다. /김윤상 기자

